

목조문화재 보수사찰 소방실태조사 동행해 보나...

대부분 소방 사각지대

화암사 - 소방수조 동파 우려
송광사 - 소화전 배관 손상
금산사 - 화재탐지시설 없어

소방수조가 지상에 노출돼 겨울철 동파 우려가 큰 화암사, 소화전 관로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는 원주 송광사, 자동화재탐지시설이 없는 김계종 금산사 미복원...

4월 5일 양양 산불로 낙산사 주요 전각이 전소된 것을 계기로 사찰 목조건축물의 방재대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가운데, 조계종 문화부(부장 탁인)

4월 22일부터 주요목조문화재보유사찰 32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5월 31일과 6월 1일 양일에 걸쳐 이뤄진 김계 금산사, 원주 송광사·화암사·위봉사 등 전북 일원 4개 사찰에 대한 조계종 문화부의 실태조사를 동행해 보니, 소방시설 현황은 생각보다 훨씬 열악했다.

△소화전 배지 및 작동 △안전선 설정 △소방수 급수 시설 △자재 소방계획 △경보시스템 설치 △소방로 설치 △유관기관 연계대응 등 10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4개 사찰(원주 송광사·금산사·위봉사·화암사) 가운데 안심할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었다. 1984년

대적광전 화재 이후 방화시설을 비교적 잘 갖춘 편인 금산사조차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국내 유일의 삼층목조건축물인 금산사 미복원(국보 제62호)에는 방범 카메라와 센서는 설치돼 있지만,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찾아볼 수 없었다. 160톤 규모의 소방수조도 마련돼 있었지만, 펌프 없이 자연 낙하에 의존한 설비로서 소화전 물줄기 위력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 단 하나뿐인 하양식(下揚式, 지붕의 하중을 받는 공포 위에 하양을 덧대 도리틀 더 얹을 수 있게 해서 서까래를 건물의 바깥쪽으로 길게 뻗을 수 있게 만든 백계계 건축 양식) 구조를 갖춘 극락전(보물 제663호) 등을 보유하고 있는 화암사에는 3개의 소화전이 설치돼 있으나, 이 가운데 물이 나오는 것은 1개에 불과했다.

또 FRP소방수조와 배관 일부는 아무런 보온시설 없이 지상에 노출돼 있어 겨울철 동파 위험을 안고 있었다. FRP수조는 통상 50~60cm 이상 길이의 매설 혹은 보온 시설을 필요로 한다. 소방차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화암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는 화암사에 이르는 비포장도로가 협소하고 구불구불해 소방차가 신속하게 도달하기도 만만치 않다.

조선시대 것으로는 유일한 십자형 종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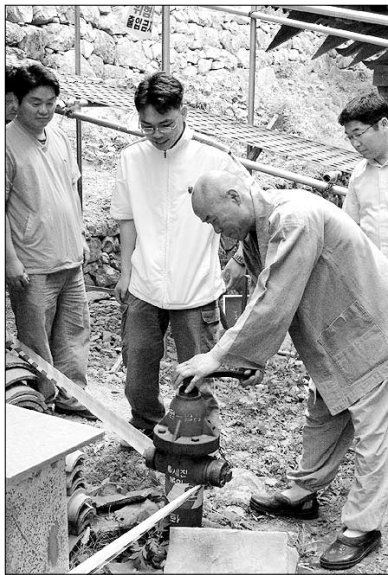
(보물 제1244호)와 대웅전(제1243호), 그리고 5m 높이의 거대한 소소삼존불(보물 제1274호) 등을 보유하고 있는 원주 송광사에는 현재 소화전 시설이 없다.

종루·지장전·나한전 등 전각들이 30cm 가량 흠에 묻혀 있어, 비가 오면 기둥들이 물에 잠기는 일이 잦아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절토(마당)의 흙을 깎아내는 공사 및 주요전각 이전 공사와 함께 소화전 배관이 손상된 것. 원주군청은 금년 중에 송광사의 소화 시설 전면 재정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위봉사는 소화전 시설을 갖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교육 또한 중요함을 보여 주는 사례다. 위봉사에는 2003년 국고보조로 소화전이 설치됐으나, 작동방법을 잘 모르는 사찰측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간 이뤄진 조사결과에 따르면 안동 봉정사나 영암 도갑사 등 몇 곳을 제외하고는 방화시설에 약점이 발견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 부족으로 소화수 확보가 어려운 강화 보문사, 소화전이 없는 안동 개목사 등은 문제가 심각한 경우다.

가장 확실한 설비로 간주되는 수막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용수 확보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드러났다. 수막설비는 소화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소화용수 확



원주 화암사에서 소화전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조사단.

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안전선(산림)과 전각 사이에 나무를 베어 내 20~30m 간격을 둔 것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이번 조사에 동행한 한 방재전문가는 "화재방지 최상의 시나리오는 초기발견 및 진화"라며 "소방차 도착에 20~30분이 소요되는 사찰의 경우 초기진화하지 못할 경우 화재의 확산을 막기 어려운 만큼 기본적인 설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태점검에 참여한 조계종 문화부 도운수 연구원은 "화재 대비책 수립 필요성에 대한 사찰이나 지자체의 인식수준이 아직 낮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 지적하고 "사찰 현실에 맞는 소방시설을 갖추는 한편, 그에 따른 매뉴얼을 숙히 마련해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찰과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news.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14>

안반(安般)의 과학

인도가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중의 하나는 단순하게 보이는 숨의 중요성을 알려줬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 순간 숨을 쉬면서 살기 때문이다.

요가에서는 숨에 숨어있는 생명력을 프라나라고 한다. 프라나란 '숨을 쉬는 것(혹은 참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 들숨과 날숨 사이에 존재하는 곳에서 생명력의 존재를 느끼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빠사나를 통해 익숙해진 개념인 사띠(sati)는 들숨(ana)과 날숨(apana)에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외부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 들이는 테크닉이다. <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은 부처님이 월지국에서 머무시면서 90일간 이 들숨, 날숨 테크닉으로 선정에 드신 경험을 설명한 경전이다. '수의'는 사

이라.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숨'은 피에 산소를 공급하는 과정이다. 기도를 통해 폐로 전달된 공기 중의 산소가 헤모글로빈에 실려 피에 전달된다. 이 산소가 세포의 에너지 발생과정에서 생성되는 수소에 산화제로서 작용함으로써, 원만한 에너지 발생메카니즘을 완성시킨다.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는 안이비설 신경을 통한 안팎의 정보가 신경세포를 거쳐 뇌로 전달되는데 기여한다.

현대 뇌 과학은 높은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대뇌가 아니라, 숨과 피와 내장을 제어하는 숨골과 대뇌의 연결고리인 변연계에서 '나'라는 느낌이 만들어지고 회로연락을 관장하는 메카니즘이 생성된다는 인식에 도달했다. 이

부처님 숨 고름 통해 마음챙기는 방법 체험 번뇌 일 때 숨 가만히 들여다 보고 느껴보자

티 즉, 마음 챙김을 번역한 말입니다. 들숨, 날숨을 따라감으로써(수식:숨을 따라감) 마음을 챙기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만 보이는 '숨을 따라감'을 통해 절대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경이롭게 보인다.

중국 사람들은 숨을 먹으면, 장자가 뜨거워진다고 말한다. 당나라 시인 두보는 이를 열중장이라고 말한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같이 술잔을 나누는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감복(感服: 현제는 感服이라고 쓰지만)이라는 단어

도 배가 느낀다는 중국인들의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아프리카를 여행한 사람이 현지 사람들에게 사람이 머리로 생각한다고 했더니, 깔깔거리고 웃더라고 하는 여행을 기억한다. 그 사람들은 배로 생각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

런 관점에서 보면 숨이란 산소를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숨을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나'라고 하는 느낌을 제어할 수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 아닐까.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되는 회로연락의 마음이 의도대로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숨과 연결된 깊은 뇌의 구조에 있기 때문이라. 배로 생각한다고 믿는 관념 역시 숨과 연결된 구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유 없이 번뇌가 일어날 때, 숨을 고르고 이 숨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부처님께서 실증적으로 숨의 고름을 통해서, 수 억년 깊은 뇌에서 각인된 업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문명성

"나말여초 승탑, 왕실서 조성 가능성"

왕실-선사 교류 활발... 신상상과 능묘 십이지상 유사

강삼해 학예사 주장

절정의 예술미를 보이는 나말여초 승탑이 왕실의 국공(國工)에 의해 조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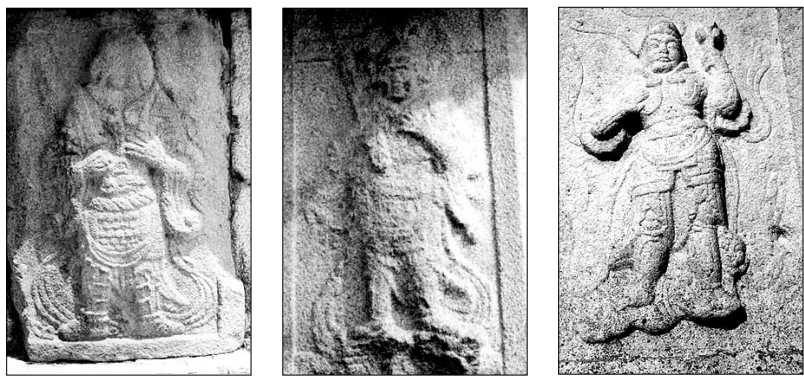
5월 28일 국립대에서 열린 전국역사학대회에서 "나말여초 승탑 탑신 신상상 연구"를 발표한 강삼해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왕실과 선사들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회적 배경과 승탑의 탑신부에 등장하는 신상상이 왕릉 조각인 능묘 십이지상과 유사한 점을 근거로 이 같이 주장했다.

강 학예사의 주장은 지방 선종사찰의 조형물이 중앙과 구별되는 지방색을 띠고 있다는 점만 강조되면서 간과돼오던 중앙

과 지방 선종 사이의 연관성을 새로이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신선한 관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 학예사는 우선 왕실과 선사의 긴밀한 관계에 주목했다. 실상산문 개산조인 흥취 스님과 신라 흥덕왕, 화양산문 개산조 지중 스님과 경문왕, 성주산문 개산조 무염 스님과 경문·현강왕 등은 서로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기록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신라 경명왕은 창원 불립사 진경대사탑 비문을 지었고, 태조 왕건은 진공 스님의 비문을 지었으며 고려 정종은 불립산문 3대 옥룡사 경보 스님 입적사에 국공을 시켜 탑을 세우게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승탑에 대한 왕실의 영향은 미술사적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강 학예사에



동시대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열거화상탑의 광목천상(기운대)의 소매는 원원사지석탑 광목천상(큰쪽)의 소매와 다른 반면, 왼쪽의 경주능지탑 유(圖)상의 것과는 흡사함을 보인다.

따르면 승탑 사천왕상은 능묘의 십이지상과 도상형식을 공유하고 있다. 갑옷 안에 입은 포의 넓은 소매자락이나 지름을 든 손모양이나 다리를 휘둘러감으며 내려오는 천의 모습 등 승탑 사천왕상의 표현은 능묘 십이지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

특히 승탑 사천왕상의 소매자락과 관련

해 강 학예사는 "거의 모든 십이지상 복식에는 이러한 소매가 표현돼 있으나, 사천왕상은 표현되는 탑이나 석등, 사리기 등에는 이 같은 소매가 한 점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승탑은 호족세력의 영향에 조성된 지방예술이러기보다는 중앙왕실인 왕실 계통의 작품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제17기 전생·빙의/영치유법 특강강좌!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최면-전생·빙의/영치유법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 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교육내용 과정보고 교재 및 실습태입 제공

빙의 치유법	○ 빙의 진단법 → 빙의령확인 → 영가와의 대화 → 영가친도 → 친도확인 → 제정신 말지 영치유법 ○ 악령제압법, 제3자를 통해 빙의된 사람의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를 통한 원격제압 친도법 ○ 신도가 자기 몸 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고 영가가 떠나는 것을 확인할 수 도 있다.
전생요법	○ 전생과 현생은 천룡보다 깊은 연결고리로서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여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고통의 단서를 찾아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 한다.
정통사주명리학	○ 사주로 조상 영가, 빙의 보는 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약사로 지승사자가 따라 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 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서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 "군경계재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유도법, 최면 심리치료, 자율훈련, 최면 명상법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강장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최면 건강법, 자연 치유력 활성화법 등

빙의(憑依)란? 흔히 귀신들림으로 말해지며 영혼이나 강력한 힘, 절대적 신의 힘이 사람에게 침투하여 삶의 전반이나 특정 증상에 영향을 주고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없다", "누군가 내 머리속에서 뭐라 얘기하는 것 같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등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한 행동, 괴벽, 정서불안,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환청이나 환각, 악몽, 가위눌림 등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빙의의 생전시 질병이나 사고 부위에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세계 보건기구(WHO)국제 질병 분류에는이를 포제션(Possession)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원인 모를 불임시에도 남녀 영가를 의심해봐야 한다.

본 강좌 개강 6월 16일(매주 목요일) 오전10시~18시까지 7회 과정
 ▶ 신청요령 : 전화접수 및 방문신청
 ▶ 교육비 : 200만원
 ▶ 입금계좌 :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 한국영식개발원

교육이수 후 무료 재수강 및 지속적인 자문지원

통신교육 방식
 ▶ 전생·빙의/영치유 전체교육내용을 실황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를 매주 1회(2시간용 3개씩)우송(7회과정 비디오 테이프 총 20개)
 ▶ 실습능력 점검 및 질의응답 등 보충교육을 위해 1회 본원에 출석수업
 ▶ 특전:수료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한국전생빙의연구회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 교육비 : 200만원

통신(VIDEO) 교육과정

※ 본 교육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거나 1만원을 송금하시면 공개강좌 비디오 및 안내 자료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6월 13일 오후1시-3시까지

한국생활치면심리학회 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한국치유학회 대학원 겸임교수

SBS백만장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KBS, iTV, CMB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

주최 : 한국 전생·빙의연구원

주관 : 한국 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

• 전 화 : (042) 255-0734-5
 • 장 소 : 대전시민회관후문 청운빌딩
 (2층 본원 강의실)대전역에서 5분거리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무료공개강좌